

제주해녀노래 전승관 개관

등록 : 2010년 07월 29일 (목) 17:57:59
최종수정 : 2010년 07월 29일 (목) 17:57:5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호 해녀노래의 전승보존과 후세교육을 위한 전승관이 최근 문을 열었다.

해녀노래전승보존회가 구좌읍 행원리 농공단지 내에 조성한 해녀노래 전승관은 앞으로 해녀노래 계승·보존을 위한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녀노래는 노동현장과 삶, 제주 여성, 제주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과 함께 제주 잠녀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해녀노래 가창구연자들이 고령인데다 전수 작업이 늦어지면서 원형을 고스란히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보유자인 김영자(여·73), 강등자씨(여·73)와 전수장학생 3명이 해녀노래의 맥을 잇고 있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앞으로 매월 첫째와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해녀노래전승관에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녀노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문의=783-5411, 4450.